

원혼의 통곡 :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무속

김 성 례*

제주도는 통곡의 섬, 일만 팔천 신도의 섬, 혹은 영웅 전설의 섬이라 일컬어지는데, 한마디로 비극적 분위기로 표현된다. 그리고 심방이라 불리는 제주 샤먼의 영험은 이 분위기를 얼마나 잘 연출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 유배지였고 근세 200년간 출륙금지라는 정치적 억압을 감내했으며 가깝게는 4·3사건의 그림자가 아직도 건히고 있지 않은 제주도의 경우 비극적 분위기는 현실이기도 하다. 삼백여 마을당신과 조상신의 본풀이와, 비탄조의 제주무가는 바로 이런 역사적 폭력을 기억하는 문화적 텍스트이다. 또한 심방의 굿은 그 텍스트를 반복 연출함으로써 폭력의 비극성을 현재화하는 문화적 장치라 하겠다.

이 논문은 역사적 폭력과 비극에 대한 기억이 원령에 대한 무속적 신앙과 심방의 굿의례를 통하여 어떻게 재현되어 재해석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사람의 역사인식을 “비극적”으로 특징지을때, 그 인식은 4·3사건과 관련된 개별적 슬픔과 죽음의 체험과 같은 일상적 인식 이상의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은 개개의 체험에 대한 “특정한 해석”까지도 포함하며 더 나아가 “비극적 전통”으로 고정된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비극적”인 것이 제주도 현대사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시국”이란 말에 이 사실이 잘 드러난다. 일상적 대화에서 “시국”이란 말은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표식이 없어도 4·3을 뜻하는 것으로 주지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4·3사건’ 혹은 ‘4·3사태’라는 말도 과거의 한 역사적 사건을 단순하게 가리키는 말로서, 요즘 많이 사용되는 ‘항쟁’이니 ‘반란’이란 말처럼 개념적이고 이념적인 위치가

* 연세대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하고 탈이념적인 ‘시국’이나 ‘사건’이라는 어휘는 그 투명한 일관성 뒷전에 은밀하게 폭력의 역사적 이미지를 감추고 있는만큼,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비극성”은 더 비장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바로 일상적 체험의 배경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이미지 영역과 꿈의 세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 곳의 “비극적 전통”을 여실히 드러내는 구체적 사례로서 다음에 꿈 얘기를 하나 하겠다.

조사당시 25세되는 미조 심방으로 부터 들은 환자곳 얘기다. 환자는 39세 남자로 신제주 관광거리에서 나이트클럽 가수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환자고모가 미조 심방을 찾아 왔었다. 그 전날 심방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흰옷을 입은 젊은 부부가 말없이 서있었다. 그 입과 가슴은 칼에 찔려 피가 막 솟구치는 것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 새벽 환자고모가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카가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른다 하고 폐병같이 말라가고 정신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로 아프니 dot제를 해서 급하게 그 증세를 가라앉혀 달라고 사정했다. 미조 심방은 이번 경우와 같이 고타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날, 말을 환자의 “조상” 영혼이 나타나 문제를 암시해 주는 꿈을 곧잘 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해서 지난 밤 꿈얘기를 환자고모에게 했다. 고모는 흠짓 놀라며 환자의 부모가 “시국”에 폭도로부터 죽창과 총으로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미조 심방은 dot제대신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질침”의 곳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즉시 큰 곳을 했다. 명부를 관할하는 시왕에게 청하여 이승과 저승사이 허공에서 떠돌고 있는 환자 부모의 영혼들을 저승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도록 길을 닦는 곳을 했다. 두 영혼이 “영개울림” 제차에서 심방의 입을 빌어 환자인 아들에게 그 “시국”에 억울하게 죽은 자신들의 한과 슬픔을 얘기할때는, 병원에서 환자도 잠시 나와 듣고 많이 울었다. 이 곳을 한다음 환자는 완전히 병을 낫지는 않았지만 그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한다. 이 환자곳은 미조 심방이 신곳을 치른이후 첫번째 맞은 큰 곳이었다.

미조로부터 이 꿈 얘기를 듣고 필자는 두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먼저

애초 환자의 병을 낫기위해 시작한 굿이 죽은 부모 영혼의 원한을 풀어드리
는 굿이된 사실이며, 달리 말하면 산자를 위한 굿이 왜 죽은자의 원한과 통
곡을 매개로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4·3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젊
은 심방이 어떻게 사건을 대변해 주는 꿈을 꿀 수 있느냐이다. 제주사람들
의 삶에 있어서 4·3이 갖는 비중은 필자가 특별히 부연하지 않아도 이즈음
에 이르러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논문의 주안점은 4.3과 무속의 관계
에 있다.

필자는 1984년부터 1985년까지 제주도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많은 굿
을 보았고 참여도 했다. 그중에서도 필자의 주관심은 환자굿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나 불상사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4·3때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피묻은 흰옷”
이 나타나는 꿈이기도 많이 들었고 종종 이들 영혼의 “영개울림”을 듣기도
했다. 현기영씨의 소설 “순이삼촌”에서는 4·3당시 학살의 영상이 1948년이
후 30년 동안(소설이 쓰인 1979년을 기준으로) 주인공을 사로잡고 그로 인
하여 그녀는 심한 자폐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학살의 이미지는 주인공 순이삼촌을 4·3의 고통스런 기억에 가두어 둘
만큼 제주사람 모두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미조 심방의 꿈 얘기나 “순이삼촌”의 얘기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
실은 “4·3”을 기억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질병과 불행, 그리고 죽음까지도 초
래할 수 있을만큼 위협스럽고, 또 그 자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제
주사람이 여지껏 이 사건에 대해서 합구하고 있었던 연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1948년 8월 15일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치이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국가체제하에서는 공공연한 논의는 물론 당시 억울하게 학살된 사
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것조차 허용이 안됐다는
것도 그 원인이 있다. 4·3사건의 희생자는 그들이 우익이었던 좌익이었던
국가의 적 내지 ‘폭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꿈을 통하여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해구지를 하면서까지
당시 죽은 영혼들도 끈질기게 현재시간으로 되돌아와 살아있는 이들에게 자

기들의 억울한 죽음의 얘기를 들려준다. 4·3사건당시 죽은 영혼들은 원혼이다. 본래 무속에서 “원혼”은 사고로 급살했거나, 전쟁에 나가 죽어 돌아오지 못한 영혼, 비자연적 상태로 죽은—물에 빠져 죽거나, 자살하거나, 살인당하거나 등등—영혼들로서 제대로 장례절차를 밟지 못한 “부정한 귀신”을 가리킨다. 원혼들은 한집안의 조상이긴 하지만 제사때도 그리 반갑지 않은 조상이다. 이들의 비정상적인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원한의 결과를 자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4·3때 죽은 혼령들을 영개울림은 더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가? 그 영혼의 죽음이 무고한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심방은 이들 원혼의 무고함을 비호하고 그들의 끈질긴 원한을 정당화한다. 무속의 영개울림은 4·3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지된 상황에서 산자가 침묵하고 있을때 죽은자의 입을 빌어 4·3의 비극을 재현하는 제주민중의 유일한 역사적 방법이라 하겠다. 산자와 죽은자는 심방의 목소리와 의례를 매개로 개인적 불행의 이야기와 역사적 비극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심방의 “영개울림”은 심방혼자만의 창작물이 아니라, 환자와 그 조상영혼, 그리고 곳에 모인 사람들의 생활사가 한데 어우러져 치유능력이 있는 한 줄기 이야기가 새롭게 조성되는 역사적 담론(historical discourse)이라 본다.

미조심방의 얘기에서 보듯이, 각자 어떤 위기상황에 대하여 어렵פות한 지식과 기대를 가지고, 또 4·3에 대한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고향에 모인 이들은 환자를 치유하는 매개체로서 상황에 참여한다. 그중에서도 심방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인지하는 독특한 감각과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특별한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때 미조 심방이 꾸민 꿈의 이미지는 국가폭력을 폭로할뿐 아니라 제주민중의 가슴에 맺힌 원한의 정서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본다. 꿈에 나타난 두 영혼의 끔찍하고 공포스런 이미지는 조상의 본래 모습이라기보다, 해방과 전국 이후의 반공이데올로기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폭력과 민중탄압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부부의 유일한 자손인 환자의 “답답한 가슴”은 그의 부모를 죽음으로 이끈 과거 폭력의 현재적 해석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제주심방이 구송하는 죽은자의 통곡과 원한의 이미지는 국가권

력과 폭력에 대항하는 “대항적 담론(counter-discourse)”으로서 국가폭력의 지배적 담론을 거울에 비추어 4·3사건때 양민학살을 정당화 해온 “폭도”들의 죽음의 의미를 뒤엎는다. 어떻게 보면 제주무속은 죽은자의 꿈 이미지나 영개울림으로 비현실적인 담론 전략으로 쉬임없이 감시하는 세력을 직접적으로 피하는 민중의 “전복의 예술 양식(the art-form of subversion)”과 같다. 필자의 궁극적 관심은 이와같이 무속적 담론이 무엇인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치유능력에 있다. 무속을 “담론”이라 할 때 무속을 단순한 치유기술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진리를 창출해 내는 대체공간(alternative space)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Foucault는 변증법적 담론 전개에 대하여 통찰력 있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한적이 있다.

“담론은 권력의 수단일뿐 아니라 그 효과이다. 그리고 장애물이 될수도 있다. 저항이나 대항전략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담론은 권력을 창출하고 계승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침식하고 폭로하고 약화시키고 위축시키기도 한다.”(1980:101)

여기서 제주 심방의 영개울림과 ‘질침’이라는 굿 의례를 통해 민중의 원한은 개인의 고통과 폭력의 역사를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주술적 담론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제주무속의 “비극적 전통”은 과거의 것이 아니며, 전후 반공정치의 “현재시간”에 불박고 이 특정한 역사적 시간대의 공간에서 제위치를 채우고 있으며, 계속해서 역사의 변천과정에서 또다시 재구성되리라 믿어진다.

참 고 문 헌

Miche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1980. New York: Vintage Books.